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9, 야고보서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9, 도서 조사, 제임스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Jude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나는 Jude를 표본 조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Jude는 작업하기가 조금 더, 어쩌면 조금 더 쉽고, 도서 조사 방법의 예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조금 더 관여하지만 유다서를 통해 작업한 후에는 야고보서를 다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잠시 멈추고 실제로 제임스의 글을 읽고 싶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다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일을 제임스에게도 해보세요. 즉, 책을 읽고 James의 관찰과 움직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 다음 돌아와서 찾은 내용과 내가 제시하는 내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양한 책들(이 경우에는 James)에 대해 발표할 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인상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지 않으며, 예를 들어 구조를 볼 수 있는 한에서는 책의 내용은 나와는 다르게 당신 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방법의 원리를 예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발표할 때는 제가 발견한 것과 그 이유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내가 정답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아니며, 당신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틀린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료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여기에 서신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과 라합뿐만 아니라 욥과 엘리야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료나 책 내용의 초점 측면에서 볼 때 전기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의 내용은 아이디어, 특히 지혜 등에 대한 개념에 매우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료는 이념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장의 제목과 가능한 제목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책의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책의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를 식별하고, 세분화하고, 책 전체에서 작동하는 주요 구조적 관계 측면에서 James는 측면에서 약간 도전적입니다. 고장의. 사실, 야고보서의 선형 구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내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1이 서신적 인사 또는 인사말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며, 분명한 관찰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신적 결론이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서론은 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결론적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해석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5장 19절부터 20절은 실제로 5장 12절부터 18장까지와 다소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휴식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본문을 보면 1.27과 2.1 사이에 큰 중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절부터 1장 27절까지에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과 일부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서곡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혜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통해 시련과 유혹과 기만의 가능성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에 관한 선언과 지시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맨 아래에서 언급했듯이 1:2부터 2:7까지 이야기합니다. James, 제 생각에는 여기 1장이 사실상 이 책의 모든 주요 문제를 다소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통해 시련과 유혹과 기만의 가능성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야고보가 1장 2절부터 27절까지 다소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한 8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각 경우에 대해 확장합니다. 이를 나는 도전에 관한 주장과 권고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혜는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되고, 그 다음 특별히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발전됩니다. 부자들의 이 모든 사업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됩니다. 2:1부터 13까지 그리고 5:1부터 6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4:13부터 5:6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나중에 분명해질 이유로 4장의 끝은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성한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소개하고, 그런 다음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토론을 합니다. 그는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에서 능동적인 믿음의 개념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2장 1절부터 26절까지에서 그것을 확장합니다. 그는 1장 26절에서 혀의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한 다음 그것을 다음과 같이 확장합니다. 이는 그가 1:26에서 3:1부터 4:12까지 말한 것을 매우 명확하게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1장 27절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 즉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소개하고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를 확장합니다.

그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고난의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12절에서 이것을 다시 선택하고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확장하며 1장 5절에서 기도의 개념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8절을 거쳐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와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것을 확장한다. 덧붙여,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혀는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에서뿐만 아니라

아마도 발달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5:12부터 18까지, 어쩌면 20까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1장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악, 특히 교향곡에서 빌린 언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서곡입니다. 서곡은 종종 짧고 축약된 방식으로 더 발전할 곡들을 서로 묶고 엮는 것을 포함합니다. 완전히 나중에 음악 작곡에서.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나중에 서신서 내에서 각각의 문제를 전개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2:1부터 5:18까지는 세 개의 하위 단위가 있게 됩니다. 2장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관한 논증과 권고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이를 신앙과 행위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연결하고 그 기초를 둡니다. 여기에서는 편파성과 수동성을 거부하는 결과와 함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3:1부터 4:12에는 형제애에 대한 진정한 복종과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과 불순한 말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싸우는 정욕에 대항하는 투쟁에 관한 논증과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질투. 그런 다음 4:13부터 5:18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행동에 대한 인내심 있는 복종에 관한 논증과 권고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복종, 자급자족과 자치의 거부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야고보 논증의 구성, 흐름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글썄, 주요 구조적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1:1의 배경 진술인 준비 진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골격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짧습니다. 즉, 이 인사말에서 항상 찾을 수는 없지만 책의 배경에 중요한 특정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야고보라고 밝히고 그의 지위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즉 종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수신자들에 관해 그가 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우리는 서신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독자들을 12지파와 분산된 위치 또는 지위, 분산된 12지파, 그리고 물론 서신 본서로 식별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배경 또는 준비 진술로서 1:1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된 질문을 하고 배경 내에서 이러한 요소의 해석적 중요성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분산된 12지파의 이 모든 사업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 나중에 야고보서의 실제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명칭이 의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관계의 관점에서 나는 이미 1.2에서 27까지는 시련과 유혹,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혜를 수단으로 가능한 기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적 승리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과 지시를 포함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대편의 말.

세그먼트에 대한 조사와 해석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 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제시된 지혜의 도구적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시련과 유혹과 가능한 속임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덕적 승리에 관한 이러한 지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도구적 역할은 실제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발견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떠나가자마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지혜와 말씀은 실제로 그가 여기 1장에서 촉구하는 종류의 삶을 성취하도록 이끄는 자원으로 제시됩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관계를 이해하는 적어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2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일, 정욕을 반대하는 투쟁, 인내,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일, 하나님의 활동을 포함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과 권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제1장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하고 내가 이미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2:1부터 5:20 까지에서 그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요소들을 실제로 도입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언급해야한다. 이것은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장소입니다.

도서 조사와 관련하여 내 자신의 편견은 내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 즉 텍스트를 직접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연구,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에서 더 중요한 데이터 등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든 것도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2차 소스에 가지 않고 텍스트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제 편견은 즉시 설문조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런 종류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즉시 가서 책에 대한 소개에 대한 한두 가지 토론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본 자원은 신약성경 서문입니다. 그 목적과 초점은 배경 문제를 논의하고 심지어 다양한 성경책의 구조.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학자들과의 대화, 즉 설문 조사를 통해 본문을 직접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과 그에 관해 그들이 말하는 것 사이의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그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로마 세계와 유대 세계의 서신서 작성의 특징이었다고 지적하는 학자가 적어도 여러 명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동안에도 세계에서는 처음에 책의 주요 주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그 주제를 책 내에서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의 구조에 대해 매우 유용한 토론을 한 루크 티모시 존슨(Luke Timothy Johnson)은 이것이 1세기 독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일이 현대인에게는 그다지 명백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서신서에 관해 이런 종류의 독서 기대, 이러한 종류의 구조적 기대를 가졌던 1세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서신이 모든 신약성서의 서신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서신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서신을 보는 데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합니다.

음, 여기에 있는 추가적인 구조적 특징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적 관계는 인과관계와 입증의 재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간서적 자료에서, 더 넓게는 담론적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인과관계와 입증의 반복입니다. 이는 명령형과 직설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을 포함하며, 우리는 이것을 권고라고 부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권장 패턴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권면(hortatory)은 명령을 뜻하는 권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바로 이런 일을 가리킨다.

반복적으로 신학적 선언은 원인, 즉 권고로 이어지며, 때로는 운동이 원인에서 결과로, 신학적 선언에서 권고로, 다른 경우에는 결과에서 권고로 이어진다. 사실, 이 권유 패턴은 사슬과 같은 종류의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James에서 그것을 가질 때 꽤 자주 당신은 직설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언적 진술, 지시하는 것은 신학적 원인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인과를 통해 명령적 명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것이 라이프스타일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명령 자체는 앞의 직설법의 효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직설법, 다시 신학적 원인에 의해 입증되며, 이는 다음 명령인 라이프스타일 요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한 직설법이 앞의 명령을 입증하는 동시에 뒤의 명령의 원인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사고나 방향, 신학적 확신과 삶, 표현, 삶으로의 전환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메시지와 심지어 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결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암시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이며, 다시 한번 비디오 시간을 들여 이러한 특정 질문을 모두 읽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야고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부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행동 사이에 반복되는 대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는 이 책에서 두 번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나서서 해설을 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이고 올바른 기독교인의 행동은 실제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궁극적인 현실, 즉 하나님,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향합니다. 반면에 부적절한 행동은 거기에 기독교 인용 부호를 넣었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상과의 우정. 물론 이러한 대조는 권고와 신학적 논증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것은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별을 초월하며, 서신서에서 그것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구약성경과 신구약 중간기의 지혜 전통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종종 지적되어 왔고 물론 아주 명백합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지혜 교육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과 사고는 단편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으며 한 길, 한 길로 걸거나 다른 길로 걷고 있으며 각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와 행동이 복잡하여 방식이 서로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제가 말했듯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제임스에게서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책들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책들을 모두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에서 절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비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어서 그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으면 알게 하라 죄인을 미혹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길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5장 18절까지에는 독자들을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야고보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가 진리와 오류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신학적 진리와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진리는 생각과 생각, 올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 모두와 관련이 있고, 오류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실과 오류의 문제는 단순히 인지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체적이다.

그러나 야고보의 권고는 그의 독자들을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절정적인 진술로 이어진다. 야고보가 이 서신 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책 자체에서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지도와 개척의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 교회 내 다른 사람들의 편에서 이 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책에 나오는 목회적인 보살핌과 교육의 동일한 실천은 5장 19절부터 20절에 따라 독자의 실제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관찰하고 조사하는 모든 것은 잠정적입니다. 이는 결국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관찰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포함한 이후 연구 단계를 토대로 도서 조사에서 관찰한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으며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세스는 자체 수정이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하며 설문조사는 책의 방향입니다.

당신은 진행하면서 어떤 종류의 잘못된 관찰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제기할 질문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잠시 멈춰서 그 질문을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내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책에 대한 조사에 대한 나의 이해입니다.

주요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대 전략적 영역. 물론 1:1은 준비 실현을 의미합니다. 1:5부터 8까지, 1:12부터 18까지, 그리고 1:22부터 25까지는 악기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에 대한 내용과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시련과 유혹에 관한 전체 내용도 주요하게 전개됩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방금 설명한 권고적인 패턴인 인과관계와 실증의 반복을 나타내며, 물론 이 구절에서도 역시 표현되는 두 가지 방식 사이의 대조의 반복을 나타냅니다. 2.14부터 26절까지는 여기서 믿음의 역할에 대한 논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인과와 실증의 반복과 대조의 반복을 나타내며, 내가 언급한 것처럼 5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비교로 절정에 달하며, 그러면 그 구절은 그 구조에 기초한 핵심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더 높은 비판적 질문과 관련된 데이터 측면에서 작가는 적어도 자신의 지위나 기능 측면에서 자신을 제임스라고 식별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 것도 가정하지 않으므로 그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구약의 인물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이방인 작가가 히브리어 성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작가가 이런 종류의 언급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유대인 작가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혜에 대한 언급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다시 유대인 작가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분산의 위치에 따라 설명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분산을 문자 그대로, 지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신학적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도서 조사 시점에서 더 중요한 데이터를 식별할 때 이 단계에서 실제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정 해석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더 중요한 데이터와 이러한 배경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가 가리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가 식별한 모든 것이 잠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여기 분산에서 1:1로 말할 때 그들의 물리적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1:1로 분산된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유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반드시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21에서 우리 아버지로 불린다. 물론 일반적으로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여긴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반드시 이들이 유대인 독자이거나 유대인 기독교 독자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손에서 시련과 박해를 견뎌왔을 수도 있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파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 학문에는 뿌리깊은 관행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작가, 특히 서간서 작가가

많은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을 강조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독자층 사이에서 문제이거나 잠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거울읽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 전체가 최근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작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듣고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신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급하고 매우 잠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손에 시련과 박해를 견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 진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 당신을 억압하는 것은 부자가 아닌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을 위하여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것처럼 들리며 교회 내에서 심각한 파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3.1부터 4.12까지 강조합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도 부자들의 손에 닦힌 시련과 박해가 독자들을 낙담과 조바심으로 유혹했을 수도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울이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적어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일반 서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울 읽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신은 명시적으로 특정 회중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일반서신에서는 여기에서 다루었을 수도 있는 특정 교회에 관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특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야고보서가 진정한 일반서신이고, 그것이 여러 교회에 보내졌을 가능성과 그가 말하는 내용이 아마도 잠재적인 문제나 그가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듣고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교회 상황의 특정 문제로 인해 특별히 촉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서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서신이 수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장소에서 적어도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 촉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무시하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려는 유혹,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경향,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편파성,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분노하고 사악한 중상적인 말, 그리고 이 책 전체와 관련된 기타 주요 인상은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토너 분위기는 종종 매우 도움이 됩니다. 토너 분위기의 역할, 책의 느낌이나 구절의 느낌, 그것이 실제로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과정을 살펴볼 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분노와 온유함 사이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는 작가 측에서 의로운 분노의 백열을 느낍니다. 천박한 사람아, 당신은 보여지고 싶습니까? 그는 220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목가적인 목자의 따뜻한 온유함도 느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한 자연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임스의 삽화가 매우 생생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행위, 즉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이의 연관성을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이것이 실제로 James의 설문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휴식을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은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9, 도서 조사, 제임스입니다.